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에 나타난 동성애

권 오 경

I

와일드(Oscar Wilde)의 초기 예술관은 프랑스 인상주의의 심미적 세계관에서 영향을 받았다. 월터 페이터(Walter Pater)는 “호기심과 아름다움의 욕구가 진정한 비평과 예술에서 중요한 것”¹⁾이라고 하면서 호기심을 심미파 예술의 필수요소로 꼽는다. 페이터가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아름다움의 추구가 아니라 불가능한 듯 하면서 까다롭고 특별한 아름다움을 향한 열망을 의미한다. 이러한 페이터의 심미주의 사상은 와일드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와일드는 페이터의 『르네상스』(Renaissance)를 데카당스(Decadence)²⁾의 꽃이라고 찬양하였다. 예술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라는 거친 재료를 가지고

1) 이상섭, 『영미비평사 2』(400)에서 재인용.

2) 데카당스라고 하는 용어는 후기 로마 제국 및 비잔틴 시대의 그리스 문학과 예술이 지니고 있다고 하는 특성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시대의 문학예술은 찬란한 황금기를 지나서 타락된 문화와 예술의 세련됨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데 이런 것이 19세기말의 유럽 문명의 상태라고 주장되고 있다. 19세기말의 데카당스 작가들은 당대를 극단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나쁜함, 물림, 그리고 권태 등을 표현하고 있다.

예술적 가치로 창조해 내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삶이란 예술의 형태를 본 받아야 한다. 『거짓말의 쇠퇴』(*The Decay of Lying*)에서 와일드가 주장하는 네 가지 주장을 보면 그의 예술론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예술은 결코 그 자체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표현하지 않는다. 예술은 사고가 그 자체의 경향에 관해 지니고, 발전시키는 것처럼 독립된 삶이다.

모든 나쁜 예술은 삶과 자연으로 되돌아오는 것에서부터 파생되는 것이며, 그것을 이상적으로 고양시키는 것이다. 삶과 자연은 때때로 예술의 거친 재료로 사용되어지곤 하지만, 그것들이 예술에 사용되기 전에, 반드시 예술적 전통에 맞게 변형되어야 한다.

예술이 삶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술을 모방한다.

거짓말, 아름다운 거짓말들을 말하는 것이 예술의 고유한 목표이다. (642)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The Picture of Dorian Gray*)(1890)은 와일드의 심미주의적 예술관을 바탕으로 한 예술과 도덕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파헤친 작품이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현실에 처한 예술과 도덕의 문제로 고뇌하고 갈등한다. 와일드는 자신이 처한 현실의 문제를 이 작품 속의 등장인물들을 통해 구현시키고 있다. 작가에게 있어서 현실의 세계는 어떤 위안이나 만족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다. 그는 또한 예술을 통한 완전한 삶을 원했고 예술만이 삶의 자기완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와일드의 심미주의는 감각적 관능적 쾌락을 통해 자아를 완성시켜 완전한 삶을 이룬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행위 자체가 단순히 악이 될 수 없으며 선을 향해 가는 감각적 기능의 한 부분일 뿐이다. 와일드가 추구하는 기본적 삶의 모습이란 것은 문학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지 삶 속에서 문학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평범한 삶과는 거리가 있는 와일드적 사고방식은 일상생활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거론한다면, 와일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척시하는 동성애³⁾ 성향을 다분히 지니고 있었으며, 실제적으로도 동성애를 경험했다는 점이다. 한 가정의 가장이면서도 동성애를 즐기는 이중적 삶을 살았던 것이다. 와일드가 동성애를 경험하고 평범치 않은 기행들을 보인 것은 어릴 적

3) 엘리자베드 윌슨(Elizabeth Wilson)은 동성애라는 것이 문화에 있어서 지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두 가지의 것을 성(性)을 통해 이중의 존재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퇴폐적인 것으로 보이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40)

가정적 환경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헤스케스 피어슨(Hesketh Pearson)은 와일드의 어릴 적 환경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딸을 갖기를 열망한 오스카 와일드의 어머니는, 그녀의 두 번째 아들(와일드)이 태어났을 때 몹시 실망하였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들이 구별되는 나이가 될 때까지 여자아이의 옷을 입혔던 것으로 전해져 왔다. (17)

어릴 적부터 와일드는 여느 소년들과는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난 것이다. 그가 소년이었을 당시에든 평범한 소년들과 어울려 공작기를 하기보다는 조용히 있거나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소녀적 성향을 보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와일드의 어릴 적 환경은 그를 다분히 감상적이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으로 성장시켰으며, 그의 성적 본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작가가 자신의 개인적 삶을 이 작품에 투영시키고 있다는 점은 작품 속에서 보이는 동성애적 성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와일드는 훗날 퀸스베리(Queensberry)⁴⁾의 거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알프레드 로드 더글라스(Alfred Lord Douglas)와 동성연애를 하고 있었다. 더글라스와의 동성연애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와일드는 더글라스와 동성애를 경험하기 이전에도 로버트 볼드윈 로스(Robert Baldwin Ross)⁵⁾라고 하는 인물과도 동성연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포 에반스(Ifor Evans)는 “1895년, 동성애적 사건으로 인한, 그의 투옥은, 연극계의 재앙이었다”(193)라고 했다. 와일드는 동성애라고 하는 이중적인 삶을 통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양면적인 모습을 실제로 체험하였다. 또한 로런스 댄슨(Lawrence Danson)은 “이제 특별히 현대적 개념의 동성애적 정체에 대한 상징적

4) 퀸스베리는 더글라스의 아버지로서 동성애를 지극히도 혐오하고 있는 사람이다. 와일드가 더글라스와 동성애를 경험하는 가운데 많은 방해도 하고 협박편지도 보내고 있다. 퀸스베리가 와일드에게 보낸 협박편지 중의 한 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자네의 비행스런 행위는 막지 않겠지만, 만약에 내 아들을 끌어들이다면, 난 개처럼 널 찢 죽이고 말 테야.” (Flesher 21)

5) 로스는 와일드가 옥중생활에서 더글라스와의 편지 형식으로 작성한 것을 자신의 죄의 증거로 남길 목적으로 복사를 부탁했었던 인물이다. 로스는 와일드가 죽고 나자 1905년 편지 형식으로 작성된 작품의 3분의 1 정도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 작품과 관련된 주요인물인 더글라스가 죽은 1945년 다음해에 작품 전체를 세상에 발표하고 있으며, 이 작품이 바로 『옥중기』이다.

역할을 배제시킨 채 개인적으로 혹은 심지어 작가로서의 오스카 와일드를 고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30)라고 했다. 동성애 사건에 연루되어 옥중생활을 하게 된 와일드가 참회의 형식으로 쓰게 된 작품이 『옥중기』이다. 리처드 엘만(Richard Ellmann)은 와일드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두 번의 전환점이 “아버지가 자신을 옥스퍼드에 입학시켰을 때와 사회가 자신을 감옥에 보냈을 때”(75)라고 언급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감옥에서의 생활이 와일드에게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고 있다. 『옥중기』에 나타난 와일드의 다음과 같은 언급들은(언급으로 미루어 보아) 그의 생각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와일드는 “도덕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⁶⁾라고 하면서 인간이 하는 일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으나 인간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악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연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로, “종교는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PF 584)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종교보다는 실질적인 체형의 세계에 관심이 더 많음을 언급한다. 세 번째로, 와일드는 “이성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PF 584)라고 하면서 자신을 감옥에 오게 만든 법률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와일드의 언급을 통해서 그의 심미주의 예술에 대한 견해는 확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와일드는 긴 머리에다 짧은 바지, 해바라기를 꽃고 런던 거리를 활보하는 등의 진기한 복장, 지나친 낭비벽, 퇴폐적인 사생활, 동성애 사건으로 옥살이를 하는 등의 예술지상주의를 몸소 실천한 데카당스 문학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표어를 문학의 형식에 도입한 다른 어떤 작품보다도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적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작품이다. 작품 속에 나오는 화가 베질(Basil)은 청교도적인 가치관과 도덕관을 지니고 있는 인물로서 도리언을 처음 보는 순간 그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자신의 모든 예술적 혼을 불어넣어 도리언의 초상화를 완성시킨다. 와일드는 단순히 윤리적인 선악의 판단만으로 예술의 가치를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것의 위험성을 이 작품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였다. 와일드가 추구하는 예술세계란 예술 그 자체 이외에는 어떠한 목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6) Richard Aldington and Stanley Weintraub, eds., *The Portable Oscar Wilde* (New York: Penguin Books, 1981), (583)에서 재인용. 이후 이 책의 인용에서는 PF라 표기하고 뒤에 페이지 수만 기입하겠음.

II

와일드는 뛰어난 어휘력과 풍부한 유머감각의 소유자로서 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천부적 재능을 지니고 있었다.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는 와일드와의 첫 만남을 회상하면서 “완벽한 문장력을 갖춘 재담가”(9)로 평가하고 있을 정도이다. 탁월한 어휘력과 풍부한 감성을 소유했던 와일드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 가치라는 것은 현실성을 바탕으로 한 진부한 삶이 아니라 극적이고 문학적인 삶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려한 장식과 치장을 선호하는 와일드의 차림새는 현실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문학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로 비쳐지고 있다.

와일드의 동성애적 성향과 인간의 양면성적인 모습은 그의 작품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도리언 그레이 초상』에서 베질은 헨리 경과 함께 미모의 청년 도리언(Dorian)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헨리 경(Lord Henry)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베질은 “나는 자네가 그와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아”(DG 17)라고 언급하면서 헨리 경과 도리언과의 만남을 질투하고 있다. 베질이 도리언에게 동성애를 느끼고 있는 가운데 위의 대사에서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지만 도리언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베질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도리언에게 화가 나자 초상화를 칼로 찢어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가운데 다시 한 번 속마음을 비쳐 보인다.

“그만뒤요, 베질, 그만뒤요!” 그는 소리쳤다. “그건 살인 행위예요!”
 “마침내, 자네가 내 작품을 이해하게 되어서 기쁘군, 도리언,” 놀라움에서 회복된 화가는 냉정하게 말했다. “자네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네.”
 “이해한다고요? 나는 이 그림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베질. 그림은 나의 일부예요. 저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DG 27)

베질은 도리언이 그림을 찢는 행위는 사랑을 죽이는 것이라고 하자, 자신이 도리언에게 품고 있는 동성애 감정을 도리언이 깨달은 줄로 착각하였다. 그러나 도리언이 가리킨 ‘사랑’은 베질이 느끼는 동성애가 아니라 도리언이 그 자신을 향

한 나르시시스트적 ‘자기애’라고 할 수 있다. 도리언은 초상화라고 하는 예술작품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 자신을 예술작품과 동일시하는 것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베질이나 헨리 경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경향은 도리언이 자신의 영혼과 초상화의 영혼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단초라고 할 수 있다.

베질은 도리언이 헨리 경과 함께 연극공연을 보러 간다고 하자, 연극공연 보러 가는 것을 포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베질은 자신과 저녁식사를 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제안을 도리언이 거절하고 헨리 경과 함께 연극공연을 보러 방문을 나서는 순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그들이 나가고 문이 닫히는 순간, 화가는 소파 위에 몸을 던졌고, 그의 얼굴에는 고통의 빛이 나타나 있었다. (DG 29)

베질이 초상화를 힘들게 완성하였을 때, 전시회에 출품하려 하지 않자 헨리 경은 그 이유를 베질에게 묻고 있다. 헨리 경의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베질은 도리언을 처음 본 순간의 느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쳤을 때, 나는 내 얼굴이 점차 창백해 가는 것을 느꼈어.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공포감이 나를 사로잡은 거야. 나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의 매력이 너무 강렬해서 저항하지 않으면, 내 몸도 마음도 다 빨려 들어가 나의 예술까지도 흡수되어 버릴 것이라고 말일세.” (DG 11)

이 세상의 악이라고는 경험해 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미(美)청년인 도리언을 보는 순간 베질은 도리언의 아름답고 감각적인 매력에 이끌리고 있는 것이다. 베질은 도리언을 향한 자신의 예술적 갈망을 초상화를 그려 나가는 과정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넣고 있다. 베질에게는 도리언이 그의 이상(理想)이었으며 온통 그에게 지배되고 있었다. 베질은 이러한 사실을 헨리 경에게는 말했지만 도리언에게는 비밀로 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소설 속에서 베질이 도리언을 숭배하고 있는 장면은 와일드의 실제 생활에 바탕을 둔 것이다. 와일드의 동성애 상대자인 더글라스는 그를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 더글라스는 와일드가 죽은 다음해인 1901년 파리에서 와일드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담긴 시가를 쓰고 있다. 와일드의 삶 자체가 문학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베질은 여배우 시빌(Sibyl)이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도리언을 위로하려 그의 집을 방문하고 있다. 베질은 도리언과 약간의 연쟁을 하는 가운데 “이 젊은이는 화가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이며, 그의 개성은 자신의 예술에 일대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다”(DG 87)라고 생각하고 있다. 베질은 자신의 초상화를 전시회에 출품하겠다고 말한다. 이에 도리언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당황해 한다. 순간 도리언은 언젠가 헨리 경에게서 들었던 베질이 자신에게 초상화를 출품하지 않는 이유를 말했다는 것과, 자신에게 있어서 그것은 계시였음을 언급했다는 말을 떠올린다. 헨리 경의 말이 떠오른 도리언은 그 전에는 왜 초상화를 전시하지 않으려 했는지 그 이유를 다그치고 있다. 도리언은 “우리는 서로 비밀을 지니고 있어요. 당신의 비밀을 가르쳐 주면 저 역시 비밀을 털어놓겠어요”(DG 89)라고 말한다. 도리언의 물음에 베질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자네를 숭배했었네. 나는 자네와 말을 주고받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질투를 느꼈네. 나는 자네를 독점하고 싶었네. 자네하고 같이 있을 때만 행복했지. 자네가 내게서 떨어져 있을 때도 자네는 여전히 나의 예술 속에 존재했었네.”
(DG 89)

베질은 동성애적 감정을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도리언에게 느끼고 있었으나 자기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동성애적 감정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던 베질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초상화를 전시회에 내놓는다는 것은 자신의 동성애를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

7) 존 스톱스(John Stokes)는 더글라스가 와일드를 진정으로 사랑했었음을 강조하면서, 그의 시 「죽은 시인」 “The Dead Poet”을 소개하고 있다.

나는 지난밤에 그의 꿈을 꾸었네, 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네
밝게 빛나면서, 비탄이 드러난,
예전 그대로, 무한한 음악 속에서,
나는 그의 황금빛 목소리를 들으며 그의 흔적을 추적 했었네
평범한 것 속에 숨겨진 은총을,
그리고 공허함으로부터 경이를 불러낸단네,
예복처럼 보잘 것 없는 것이 아름다움을 입을 때까지
그리고 온 세상은 매혹적인 장소였었네. (4)

문에 작품을 전시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초상화를 그리는 동안 그림물감 하나 하나가 나의 비밀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우상 숭배가 발각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되었어. 도리언,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이 초상화와 대화했고 내 자신의 너무나 많은 부분을 거기에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하고 느끼게 되었다네. 이 그림을 절대로 전시회에 내놓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도 그때였다네.” (DG 90)

억압적인 도덕규범이 팽배한 빅토리아 사회에서 동성애를 드러낸다는 것은 사회적인 조롱은 물론 엄청난 개인적 불이익을 당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라는 것은 그 이전의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었다. 빅토리아 시대의 억압적 사회풍토와 위선 속에서 동성애에 대한 시각은 극도의 거부감으로 연결 지어졌지만 비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동성애가 벌어지고 있었다. 빅토리아 사회의 청교도적 인물을 대표하는 베질이 경험하는 동성애는 빅토리아 사회가 지니고 있는 위선과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베질은 초상화를 전시회에 내놓지 않은 이유를 말하면서 그 동안 자신이 지니고 있던 도리언에 대한 동성애적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고 있다. 베질의 고백을 듣고 난 도리언은 그렇다면 이제 와서 초상화를 전시회에 내놓으려 하는 이유를 묻고 있다. 베질이 도리언에 대한 동성애적 감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한 초상화를 전시회에 내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베질의 도리언을 향한 자신의 동성애적 감정이 시들었기 때문이 아니다. 베질이 도리언을 향한 자신의 모든 열망이 담긴 초상화를 전시회에 출품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 해석은 베질이 자신의 자격지심 때문에 초상화를 내놓으면 남들에게 자신의 비밀스러운 감정이 드러날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졌다는 점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 베질은 그러한 두려움은 자신의 지나친 자격지심에 기인하는 것이란 걸 깨달은 것이다.

“예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추상적인 거라네. 형태와 색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형태와 색채 그대로일 뿐일세. 예술은 예술가를 나타내기보다 오히려 예술가를 훨씬 완전하게 숨기는 것이라고 가끔 생각하네. 그런 이유로, 이번 파리로부터 전시회의 신청을 받았을 때, 나는 우선적으

로 자네의 초상화를 출품하겠다고 결심한 거라네.” (DG 90)

결국 전시회에 출품되는 초상화는 형태와 색채 그 자체만을 나타낼 뿐이지 베질 자신이 감추고 싶어하는 동성애적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란 것을 깨달은 것이다. 두 번째 해석은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커밍아웃(coming out)⁸⁾의 단계로 보는 견해이다.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커밍아웃의 단계를 거치는데 베질이 초상화를 전시회에 출품하는 과정을 그러한 단계로 해석하는 측면이다. 베질은 자신이 초상화를 전시회에 출품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난 후에 도리언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시빌이 자살한 후 초상화는 이미 추한 물골을 하고 있었고 도리언은 자신의 다락방에 감추어 둔 상태였다. 도리언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다시 한 번 자신의 모델이 되어 달라고 하지만 이것 역시 도리언은 거절하고 있다. 이에 베질은 일생 동안 두 번씩이나 이상적인 것을 만나는 사람은 없다면서 애원해 보지만 소용이 없다. 평소 헨리 경과를 달리 빅토리아시대가 요구하는 도덕적인 생활을 유지하던 베질이 동성애적 감정을 지닌 채 위선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도리언은 그가 측은하게 생각되었다.

그 화가의 어처구니없는 질투의 발작, 열렬한 헌신, 과분한 찬사, 그리고 납득 안 가는 침묵. 이런 의문들이 비로소 풀리자, 도리언은 그를 딱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로맨스에 의해 채색된 우정에는 뭔가 비극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DG 91)

베질이 요구한 초상화도 보여주지 않고 다시 한 번 모델이 되어 달라는 요구도 과감히 거절한 도리언은 “초상화에는 뭔가 운명적인 것이 있어요. 초상화에는 그 자체의 생명이 있어요”(DG 91)라는 모호한 말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있다. 도리언은 자신을 이상으로 삼고 있는 베질에게 구체적인 비밀을 밝힐 수가 없는 것이다.

초상화가 지니고 있는 추악한 모습에 누군가가 몰래 빗장을 열고 들여다보지는 않을까 하고 도리언은 노심초사하는 세월을 보낸다. 시간이 지나 도리언의 나

8) 커밍아웃은 'come out of closet'에서 유래한 말로서 동성애자들이 벽장(closet) 속에서 당당히 나와서 자신의 성 지향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뜻한다.

이가 스물 다섯이 지난 후부터는 그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고 있었다. 쾌활하고 매력적인 미소와 언제까지도 사라질 것 같지 않은 미소를 지니고 있는 도리언과는 무관해 보이는 이야기들이었다.

화이트 체플 변두리에 있는 저속한 소굴에서 외국의 선원과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느니, 도적이나 화폐 위조범들과 어울려 다닌다느니, 그의 직업이 편지를 알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져 나갔다. (DG 110)

도리언의 얼굴 모습은 천진난만한 소년의 얼굴이지만 초상화는 영혼의 부패를 나타내면서 추악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도리언은 자신의 겉모습과 감추어진 초상화의 일그러진 모습을 비교하면서 점점 자신이 악에 휘말려 들어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수집한다거나 사교계 모임에도 참가하면서 감추어진 악의 생활도 영위하는 이중적인 삶을 지속시키고 있다. 어느 날인가 베질은 도리언과 관련한 소문의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도리언을 찾아온다. 베질은 세간에 떠돌고 있는 도리언의 행적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들을 차근차근 열거하면서 도리언을 추궁하였다. 베질의 입장에서 볼 때 도리언의 순진 무구한 밝은 얼굴 생김새와, 조금도 오염되지 않은 젊음을 보고 있으면 도저히 이중적 생활의 이면에 있는 추악한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베질은 도리언의 행적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한 후에 그의 영혼을 보여 달라고 한다. 이에 도리언은 자신의 영혼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초상화가 숨겨져 있는 방으로 베질을 데리고 간다. 도리언이 초상화가 덮여 있는 휘장을 걸어 논 막대를 잡아당겨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순간 캔버스 위에 놓여 있는 무시무시한 얼굴이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 그림 안에는 한 점의 사악함도 수치도 없었어. 자네는 내게 있어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이상과도 같은 것이었네. 그런데 이젠 색정(色情)에 빠진 괴물의 얼굴이 아닌가”

“제 영혼의 얼굴입니다”

“아, 그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것을 나는 숭배해 온 것인가! 이젠 악마의 눈을 하고 있어”

“우리는 누구든 천국과 지옥을 자신의 몸속에 가지고 있어요, 베질” 절망적인 몸짓으로 격렬하게 도리언이 소리쳤다.

베질은 다시금 초상화를 정면으로 대하고서 한동안 응시했다. “아,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외치듯이 이렇게 말했다. “만약 이것이 자네 생활의 참 모습이라고 한다면, 자네는 자네에게 욕을 퍼붓고 있는 패들이 상상하고 있는 이상의 악인(惡人)이야! (DG 122)

베질은 거의 절망감에 빠졌다. 그가 이상(理想)으로 생각했던 순진함과 청순함을 함께 지녔던 도리언의 내면이 타락과 추악함으로 싸여 있는 것을 확인한 베질은 너무나도 큰 충격에 휩싸인 것이다. 분명히 자신이 그렸던 그림이건만 초상화의 모습은 추악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리언은 충격에 휩싸인 베질을 잔인하게 살해한 후 과학자인 앨런(Alan)을 찾아가 베질의 시체를 화학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지만 그는 완강히 저항하면서 거절하고 있다. 한 인간을 살해한 도리언은 죄책감에 싸여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자신의 추악함을 은폐시킬 것인가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도리언은 자신의 부탁을 완강히 거절하는 앨런에게 다시 한 번 자신의 타락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앨런, 미안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만든 건 자네야”, 라고 중얼거렸다. “편지는 이미 써 놓았네. 자네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것을 보낼 수밖에 없어. 도와주는 게 싫다고 한다면 이걸 보낼 셈이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건 알고 있겠지. 그렇지만 자네는 날 도와줄 거야. 지금에 와서 거절하는 건 불가능해”. (DG 132)

도리언은 급기야 앨런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파렴치한 행동을 도와주도록 협박하고 있다. 앨런은 이러한 도리언의 모습을 보면서 “자네는 타락에서 타락으로 넘나든 끝에 결국 범죄자가 되어 버렸어”(DG 133)라고 외친다. 앨런의 도움으로 시체를 무사히 처리한 도리언은 그날 저녁 흐트러짐 없는 복장을 하고서 나버로우(Narborough) 부인의 응접실에 도착했다. 도리언은 평상시와 별로 다를 것 없이 침착하고 우아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도리언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이중적 모습은 단순히 이 작품 속에서 창조된 인물만이 지니고 있는 특징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보편적 속성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듯 부드러운 손가락이 죄의 칼을 쥐었으며, 그렇듯 웃음 띤 입술에서 신도 두려워하지 않을 욕이 튀어나왔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할 일이었다. 도리언

자신조차도 그지없이 침착한 자신의 태도가 이상하게 여겨져, 한 순간 이중생활의 소름끼치는 기쁨을 강하게 느꼈을 정도였다. (DG 135)

인간이라면 누구나 외부세계와 내부세계의 갈등을 느꼈을 것이다. 헨리 경은 도리언에게 엄격한 사회적 규범의 틀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자기 내부의 해방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많은 해방적 사고를 주입시켰다. 필립 드루(Philip Drew)는 유혹에 따른 자기 부정을 하지 않고 쾌락적 삶을 실행에 옮긴 도리언이 자기 해방을 맛보려고 했지만 결국 쓰라린 한계성을 느끼고 있을 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도리언 그레이는 마침내 완전한 자유가, 도덕을 거부하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회피하며 과거를 파괴시킴으로써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338)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고 유혹에 자기 자신을 내맡긴 도리언은 자기 내면 깊숙이 도사리고 있던 악(惡)을 표출시킨 것이다. 도리언이 타락하는 과정은 발전단계를 거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도리언이 자신에게 언급하는 말들이 현실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리언의 독백이 현실화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언제까지나 젊음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은 내 자신이고, 늙어 가는 것이 이 그림이라면!” (DG 26)

“나는 내가 늙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자살하고 말 거예요.” (DG 26)

“그러나 그 초상은 계속 살아 나갈 것이다. 언제까지나 살아 있을 것이다.” (DG 93)

앞에서와 같이 도리언은 젊음을 유지하는 반면 초상화는 시빌의 죽음 이후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도리언이 끊임없는 쾌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의 주위를 맴돌던 인물들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헤티(Hetty)라고 하는 순진한 시골 소녀만은 예외이다. 도리언은 순진하고 맑은 영혼을 지닌 헤티를 사랑하게 되지만 유혹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다. 쾌락을 추구해 온 이후 처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게 된 도리언은 초상화의 표정이 변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도리언은 “아마 사악한 죄의 표시가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른다”(DG 168) 라는 생각으로 초상화를 확인하러 가는 모습 속에 일말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초상화를 확인하는 순간의 도리언의 표정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는 달라진 것을 볼 수 없었다, 눈에는 교활한 빛이 들어 있었으며, 입은 위선자의 찌그러든 주름이 보이고 있었다. (DG 168)

초상화의 모습은 단순히 표정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름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초상화가 추악함과 동시에 늙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충격에 휩싸인 도리언은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담고 있는 초상화를 처치할 생각으로 칼을 들고 힘껏 찔렀다.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간 하인들은 심장에 칼이 꽂힌 채 죽어 있는 늙고 추한 모습의 남자를 발견하고 있다. 초상화는 멋진 젊음과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살아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살 것을 암시한 채 이 소설은 막을 내리고 있다. 도리언이 언급했던 말들이 현실화되는 과정은 도리언이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있다.

도리언은 일생 동안 참혹한 살인을 저지르고 추악한 행위를 일삼았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도리언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면 중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한 면을 드러낸 것뿐이다. 최소한 도리언은 죄를 짓는 행동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죄를 경험하고 나서야 죄악의 쓰라림을 알고 회개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죄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죄의 추악함을 직접 느낄 수 없기에 언제나 죄악의 유혹을 내면에 간직하고서 언제 타락할지 모르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원의 여지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리언의 범죄 행위는 엄격한 도덕관이 지배하는 빅토리아 사회에서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필립 드루는 “자유라는 이름의 죄는 자유가 아니라 죽음을 가져다준다”(338)라고 했다. 지나치게 자신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어 타락의 늪을 헤매던 도리언은 당시의 빅토리아인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인물이었고 그것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기에 와일드는 도리언이 죽는 것으로 처리하였고 이 작품은 세상 밖으로 출간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도리언은 죽음을 맞이하기는 하였지만 와일드는 소설 속에서 빅토리아 사회에서 드러내 놓을 수 없었던 '동성애'라든가 상류사회의 위선적이고 타락된 삶을 적나라하게 묘사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빅토리아 사회의 모습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데 충분히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이 소설은 철저하게 예술 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간 와일드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도리언의 상식을 뛰어넘는 추악한 행위는 현실의 도덕적 관점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와일드가 추구하는 예술세계에서는 추악한 행위 이전에 다분히 예술적인 삶을 살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에서 도리언이 자신의 영혼을 초상화에 내맡길 수 있었던 것은 다분히 와일드의 예술 지향적 삶이 도리언에게 투영된 것이다. 헨리 경은 도리언에게 시빌을 현실 속의 인물이기보다는 무대 속에 존재하는 여배우로만 볼 것을 종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적 삶은 도리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 헨리 경은 도리언과 하이드 파크 공원에 있던 설교가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술에는 영혼이 있지만, 인간에게는 없다고 예술가에게 말해 주려고 생각했었네.”(DG 164)라고 한다. 빅토리아 사회에 조성되었던 도덕적 체계와는 달리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생활을 누려 왔던 사교계는 와일드의 부끄러운 행각들이 드러나자 빅토리아 상류층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더욱 더 신랄하게 와일드의 행동을 비난하고 나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와일드를 희생시킴으로써 자신들의 파렴치한 행각들은 세상에 폭로되지 않고 안전하게 묻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존 카길 톰슨(John Cargill Thompson)은 “전성기 시절 와일드는 사회의 규칙에 무관심하게 되었다. 그는 대중적인 장소에서 남창들과 평판이 좋지 못한 인물들을 초대하면서, 공공연하게 그의 동성애를 자랑하였다”(397)라고 주장한다. 와일드의 전유물로만 생각되는 동성애적 경험들은 당시 빅토리아 사회에서 공식석상에서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공공연하게 묵인되고 있었던 현상이었다. 와일드는 빅토리아 사회에서 비공식적으로 묵인되고 있던 치부를 당당하게 드러내고서 보다 더 자유롭고 개성적인 삶을 살고자 했다. 와일드는 빅토리아 사회의 모든 추악함과 더러움을 한 몸에 지고 수감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만인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서 죽음을 맞이했던 예수의 행적과도 비교해 볼만하다. 와일드는 『옥중기』에서 자신을 예수와 비교하였고, 예술세계를 지향하면서 겪었던 많은 고난들을 회고하면서 예수의 행적과 자신의 시련들을 상당히 진지하게 연관시키고 있다. 와일드는 기존

의 관습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유분방한 삶을 살면서 상류층의 위선적인 삶에 철저히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와일드는 도리언이라는 작중인물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상류층의 위선과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기존의 인습이나 도덕체계로부터 분리된 자유와 해방감을 경험하고 있다.

III

와일드가 주장하는 심미주의 예술론은 페이터의 사상에 근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예술과 인생의 분리를 주장함으로써 페이터와는 차이를 두고 있다. 인생은 언제나 예술을 모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나치게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빅토리아 시대의 위선적 삶에 회의를 느낀 와일드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 자신의 실체 및 진리를 깨닫도록 하는데 예술만한 것이 없었던 것이다. 와일드의 삶은 곧 예술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예술에 자신의 모든 정열을 다 바쳤다. 와일드가 평론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아름다움, 삶에 있어서 완전한 형식으로서의 예술, 그것들이 전통적인 관습의 틀을 벗어나 개성을 완성시키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개인주의에 있다고 하는 것이며,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통한 자아를 찾는 과정에 집중되어 있다. 빅토리아 시대가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도덕관은 예술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삶의 진리는 오직 예술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예술과 현실은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 예술과 현실 속에서 고뇌하고 갈등하는 등장인물을 통해 예술은 현실의 삶 보다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 와일드의 심미주의적 예술론을 작품 속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선과 악의 개념으로는 심미주의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 지나친 상식, 편견, 도덕규범이 지배적 분위기를 이루던 빅토리아 사회에서 시대를 앞선 와일드의 사상은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다. 누구보다도 뜨겁고 정열적인 예술 혼을 지녔던 와일드는 문학작품 속에서 삶을 영위한 것이지 삶 속에서 문학을 영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와일드는 삶 자체를 문학작품의 한 장르로 파악하였으며 결코 삶을 진부한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품 속에서 헨리 경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활이라고 하는 산문에 너무도 많은 돈을 퍼부어 파산해

버리지. 시(詩) 때문에 자신을 파멸시키는 일이야말로 명예이지.”(DG 46)라고 언급하고 있는 장면에서도 와일드가 생각하는 삶이란 곧 문학임을 알 수 있다. 현실의 와일드는 아일랜드인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주변인에 머물렀지만, 문학적 삶 속에서만큼은 화려한 무대 위의 주인공이었다. 오든(W. H. Auden)은 와일드의 삶이 곧 드라마였으며, 그의 편지를 연대기적으로 읽는 가운데, “그리스 비극을 보는 유사함”(118)이 있다고 했다. 와일드의 문학작품들은 사람들로부터 꾸준히 읽혀지고, 연극이나 오페라로 공연되어짐으로써 그의 예술적 가치나 문학적 업적은 이미 오래 전에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그의 명예가 회복되지 못했다. 최근에 공식적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와일드가 복권(復權)⁹⁾된 것은 문학사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 시대를 품기 했던 와일드의 위대성은 그가 경직된 전통문화를 과감히 깨뜨리고 다양성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의 도래를 초래시켰다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안양대)

9)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다음으로 많이 읽히고 공연되는 와일드의 작품들은 그가 동성애자였다는 이유로 커다란 명예가 간직되고 있었다. 와일드 또한 말년에 동성애로 인해 해외로 추방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살았다. 그러다 사후(死後) 98년 만에 런던 도심 한복판에 와일드의 청동 흉상이 제막되고 이 자리에 영국 정부의 문화장관 크리스 스미스가 참석, 축사를 읽음으로써 그는 정식 복권(復權)된 것이다. 이 흉상은 애연가였던 와일드가 손에 담배를 쥐고 있는 모습이며, 묘비명에는 “우리 모두는 시궁창에 있지만, 우리 중 몇 사람은 별들을 바라보고 있지.”라는 와일드의 명언이 새겨져 있다. 스미스 역시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각료 중 한사람이다. 토니 블레어 총리와 노동당 정부는 와일드를 옥에 가두었던 바로 그 법률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난 7월 상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와일드의 복권(復權)은 BBC 방송 전 프로듀서였고, 로열 오페라 하우스 극장장을 역임한 제레미 아이작스 경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지난달 30일 런던 도심 트라팔가 광장 부근에 세워진 흉상은 와일드가 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으로 “복권”(復權)을 상징하고 있다. 아이작스 경은 오래전부터 흉상제작 모금 운동을 펼쳐 왔고, 마침내 올해를 넘기기 전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상 『조선일보』 1998년 12월 2일(수) 참조.

인용 문헌

이상섭, 『영미비평사』. 민음사, 1987.

조선일보 1998년도분.

Aldington, Richard., and Weintraub, Stanley. eds. *The Portable Oscar Wilde*. Penguin Books, 1946.

Auden, W. H. *An Improbable Life*. Richard Ellmann. ed. *Oscar Wilde*. New Delhi: Prentice-Hall of India Private Limited, 1980.

Danson, Lawrence. *Wilde Intentions*. Oxford: Clarendon Press, 1997.

Drew, Philip. *The Meaning of Freedom*. Aberdeen: Aberdeen University Press, 1982.

Ellman, Richard. *Autobiography, Biography, and Narrative*, Book Forum, December, 1988.

Evans, Ifor. *A Short History of English Literature*. New York: Penguin Books, 1940.

Flesher, Trevor. "Kill the Bugger!," *New Statesman & Society*, April (1995): 1-30.

Pearson, Hesketh. *The Life of Oscar Wilde*. London: Methuen & Co. Ltd., 1946.

Stokes, John. *Oscar Wilde: Myths, Miracles, and Imit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Thompson, John Cargill. *A Reader's Guide to Fifty British Plays 1660-1900*. New Jersey: Pan Books, 1980.

Wilde, Oscar. *The Decay of Lying*. W. J. Bate ed. *Criticism: The Major Text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0.

_____. *The Picture of Dorian Gra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88.

Wilson, Elizabeth. "Forbidden Love," *Newstatesman & Society*, November, 1989.

Yeats, William Butler. *My First Meeting with Oscar Wilde*. Richard Ellmann ed. *Oscar Wilde*. New Delhi: Prentice-Hall of India Private Limited, 1980.

Abstract

The Homosexuality in *The Picture of Dorian Gray*

O-Kyung Kwon

Oscar Wilde's aesthetics is reflected in his works, *The Picture of Dorian Gray*. In this novel he reveals the puritan hypocrisy and materialism of Victorian society. He is against Victorian vulgar materialism, moralism and philistinism. His *The Picture of Dorian Gary* is the most representative homosexual novel among his works. Wilde confesses his double life, homosexual temperament and beauty for beauty's sake through Dorian's life in this novel.

In view of Wilde's aesthetics, art is prior to reality. Wilde's understanding with an assertion that "Life imitates Art far more than Art imitates Life," presents his attitude about art and life. At the beginning of the novel, Dorian is described as an image of good but gradually becomes an image of evil. Dorian has come to realize that good and evil coexist in himself. Dorian, a good looking young man, stays young because he sold his soul. As time goes on, Dorian becomes a murderer and a liar. When Dorian looks at a portrait of himself, because it is grotesque to him, he stabs himself with a knife causing his own death.

Although Wilde concludes the novel with Dorian's death, he achieves his aim which is to reveal Victorian hypocrisy and its corrupted mores. Wilde is interested in describing the follies of the Victorian morality and satirizing the hypocrisy of the Victorian upper classes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 modern notion of homosexuality is revealed by Basil. Basil's effusive longings for Dorian mean not only artistic desire but also homosexual desire. From this point of view, Basil who believes in Christianity represents Victorian hypocrisy. Wilde depicts his real life in this novel. Wilde himself was arrested for homosexual offenses under the Criminal Law Amendment Act of 1895. In the problem of homosexuality it must be pointed out that in spite of his crime, Wilde as an artist plays a role of martyr

in Victorian society. There is no important moral act or immoral act in Wilde's aesthetic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art is superior to ethics.

■ 주제어 : Aesthetics, Dorian, Basil, Hypocrisy, Homosexuality(심미주의, 도리언, 베질, 위선, 동성애)